

유틸리티

텍사스 정전 사태는 풍력 때문일까?

유틸리티/철강

Analyst 문경원, CFA

02. 6454-4881

kyeongwon.moon@meritz.co.kr

신재생 섹터 조정의 빌미가 된 텍사스 정전 사태

최근 신재생에너지 섹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조정 진행 중. 글로벌 대표 업체들의 2월 MTD 수익률은 Plug Power(-21.3%), Vestas(-2.3%), Enphase(-3.0%) 등. 국내 씨에스윈드의 경우 유상증자 신주 상장예 앞선 권리 공매도 등의 이슈가 더해지면서 (-5.3%) 하락.

원인은 크게 1)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, 2) 인프라 정책 부재에 대한 피로감, 3) 텍사스 주의 기록적인 정전 사태 등으로 요약. 텍사스 주지사 Abbot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은 텍사스 주의 높은 풍력 발전 비중(23%)를 정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'그린 뉴딜'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.

풍력은 잘못이 없다

텍사스 주 내 일부 풍력 발전기가 얼어붙으며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한 것은 맞으나, 이는 모든 형태의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문제. 오히려 주요 원인은 South Texas 원전 및 일부 가스 발전기의 가동 중지. ERCOT(텍사스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) 산하 Woodfin에 따르면 가동 중지된 발전 용량 중 풍력의 비중은 13%에 불과(vs 2020년 풍력 발전 비중 23%).

오히려 향후 강화될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주목해야할 때. 특히 3월에는 1.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부양안 통과가 기대.

텍사스 주 사태가 남긴 것은? : '분산형 전원'

텍사스 정전 사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독립된 전력 계통 구조와 중앙집중형 전력망 설계. 해당 사태를 계기로 하여 계통의 부담을 줄여주고, 비상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(ESS, 연료전지)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. 실제 미국 내 ESS 관련 종목인 Star Peak Energy, 비상발전기 관련 종목인 Generac은 2월 각각 +31.0%, +35.8% 상승하며 기대감을 반영 중

국내에서는 4월 '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' 발표 예정. 발전원-수요처 사이의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안이 발표될 전망. 국내 ESS와 연료전지 산업에 주목. 더불어 송배전망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중전기 업체도 수혜 예상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